

중국, 시민 항의에 P-X 70만톤 이전

푸자다화, 방파제 붕괴로 유독물질 방출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대규모 시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국 다롄(大連)의 유독성 화학물질 공장 이전이 본격화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롄이 유독성 화학물질인 P-X(Para-Xylene)를 생산하는 푸자다화(福佳大化) 석유화학공업유한공사의 공장 이전을 추진할 전담기구를 발족했다고 11월2일 보도했다.

다롄은 공장 이전 추진과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 위해 석유화학 관련기업들을 밀집시키는 대규모 청정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푸자다화의 다롄 공장은 중국 최대인 P-X 생산능력 7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나, 8월 태풍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공장 주변 방파제가 붕괴돼 유독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1만2000여명이 시정부 광장에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다롄시 당국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중국에서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02>